

제 목	국 문	생활양식중 위험요인이 적혈구와 혈청내 구리 및 아연과 혈청 ceruloplasmin에 미치는 영향		
	영 문	The influence of Risk factor among life style on Copper and Zinc in RBC and Serum, and Serum ceruloplasmin.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박진완, 최병선, 박정덕, 장임원, 홍연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
	영 문	Jin Wan Park, Byung Sun Choi, Jung Duck Park, Im Won Chang, Yeon Pyo Hong College of Medicine. Chungang Univ.		
분 야	역 학	발 표 자	홍 연 표	
발 표 형 식	포 스텐	발 표 시 간	15분	
진 행 상 황	연구완료 (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), 연구중 (<input type="checkbox"/>) → 완료 예정 시기 : 년 월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의 생물학적 지표로서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혈중 구리, 아연과 ceruloplasmi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이에 본 연구는 혈액내 구리, 아연 및 혈청내 가장 강력한 산화제인 ceruloplasmin이 생활양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서울 및 서울근교에 거주하는 신체적으로 어떠한 증상도 호소하지 않으며 과거에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남자 113명을 대상으로 적혈구와 혈청의 구리와 아연농도 그리고 혈청 ceruloplasmin농도, 혈청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이들 측정치와 흡연, 음주 및 신체적활동량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였다.</p>				

3. 연구결과

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27.4세 이었으며, 적혈구의 구리와 아연은 연령, 혈청 구리는 BMI, 혈청아연은 총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청ceruloplasmin은 연령 및 BMI와 유의한 편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.

흡연에 따라 고흡연군에서 혈청구리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($P=0.0687$)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음주섭취량에 따른 적혈구와 혈청내 구리, 아연 및 혈청 ceruloplasmin농도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신체적활동량에 따른 적혈구와 혈청내 구리, 아연 및 혈청 ceruloplasmin농도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고흡연군 및 신체적활동량이 적은군과 흡연을 적게 또는 안하면서 신체적활동량이 중등도 이상인 군을 비교하였을 때에도 적혈구와 혈청내 구리, 아연 및 혈청 ceruloplasmin농도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4. 고찰

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건강한 비교적 젊은 성인이며, 구리와 아연농도가 아주 높거나 낮지 않으므로 항상성 조절이 잘 되는데 연유한 것이라고 여겨지지만, 본 연구에서 흡연량이 10 pack-year이상, 음주량이 100 grams/week 이상 그리고 신체적활동이 3,000 kcal/day를 넘는 대상자가 적은데에도 연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. 그러므로 많은 대상자에 대해 전향성조사를 통해 다른 미세 영양물질과 생활양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.